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볼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넛회원 주중 8리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한국 '이란 징크스' 넘어 결승가자



4회 연속 8강서 격돌
1996~2004년 1승2패
"예선부진 털자" 다짐

2007 아시안컵축구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가까스로 벗어난 태극전사들이 광고롭게도 아시아의 전통 강호 이란과 4회 연속 8강전에서 맞붙게 됐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면서 조 2위를 확정, '자카르타의 기적'을 통해 극적으로 8강행 티켓을 차지했다. 하지만 힘겨운 8강행 뒤에는 '산너머 산'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유달리 악연이 깊은 이란.

한국은 유독 아시안컵에서 이란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1972년 아시안컵에서 이란과 준결승에서 만난 한국은 1-2로 지면서 1960년 이후 12년 만에 찾아온 우승컵 탈환의 기회를 눈앞에서 날렸다. 이란 징크스의 전조적이었던 셈.

1988년 조별리그 4차전에서 이란을 3-0으로 꺾으면서 아픈 과거를 잊는 듯 했던 태극전사들은 1996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 8강전에서 무려 6골을 내주는 졸전 끝에 2-6으로 참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2000년 레바논 대회 8강에서 다시 이란을 만나 두 골을 터트린 이동국(미들즈브러)의 활약으로 2-1 승리를 거두면서 징크스 탈출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2004년 중국 대회 8강전에서 이란과 난타전 속에 3-4 패배를 당했다.

이란과 악연은 아시안컵뿐 아니라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해 도하 아시안게임 3-4위전에서 한국은 이란에 0-1로 졌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결승행 티켓을 내쳤다. 그보다 앞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도 0-1로 패했다.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이겼던 기록보다 패배의 아픔을 곱씹었던 기억이 많은 이란과 아시안컵 8강에서 재결투하게



된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베어백 감독의 기세가 달린 8강전인 만큼 태극전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란을 넘어 아시안컵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이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면 개인기와 체력이 뛰어난 팀이란 점을 알 수 있다"며 "선제골을 내주고도 역전시키고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19일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갈리노에이 이란 감독은 한국과 8강전 전망에 대해 일단 "한국 경기의 비디오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국의 약점을 공략할 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베어백호 금기사항

- ① 위험한 백패스
- ② 단조로운 전술
- ③ 허점많은 수비

'중앙 미드필더의 빠른 패스와 조직력을 살리고 쓸데없는 실수를 줄여라.'

2007 아시안컵축구 조별리그를 힘겹게 통과해 8강에 합류한 베어백호의 경점은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축구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조별리그 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을 빼면 1,2차전에선 어이없는 실수로 실점을 했을 뿐 아니라 스피드가 실종된 답답한 경기운영과 전방을 향한 의미 없는 퐁패스, 위태로운 중·후방의 연발 등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였다.

▲허리의 움직임 강화하라=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베어백호의 조별리그를 결산하며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협력 플레이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수비에서는 안전이 원칙이지만 수비수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많았다. 미드필더에서 한 톱도 빠르게 찢어주는 패스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차전에서는 수비수가 안전하

게 불을 거뒀지 못한 게 결국 페널티킥 허용의 빌미가 됐고, 바레인과 2차전에서는 최종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사인이 맞지 않아 백패스가 도중에 차단돼 역전패의 아픔을 겪었다.

▲방심은 금물= 김 베어백 감독은 1,2차전을 마친 뒤 "조직력의 실수가 아닌 개인의 실수로 실점을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1차전에서 수비수의 안전한 클리어링 미스가 화를 불렀고, 2차전에선 미드필더의 어이없는 백패스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영무 위원장도 "사우디전은 이길 수 있었지만 실수로 동점을 허용했고 바레인전은 선수들이 선제골을 넣고 나서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크다"며 "상대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길 경기를 놓치면서 스스로 위기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다양한 공격전술 부재= 인도네시아 공격수 방방 파몽카스는 한국의 전술에 대해 "스피드는 없고 포지션 유지와 패스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좌우의 빠른 침투와 조직적인 패스에 의한 중앙 공격을 통해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개인기에 의존하는 골만 터트렸다. 베어백 감독 역시 인도네시아전을 끝낸 뒤 "전술이 단순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시인했다.

더구나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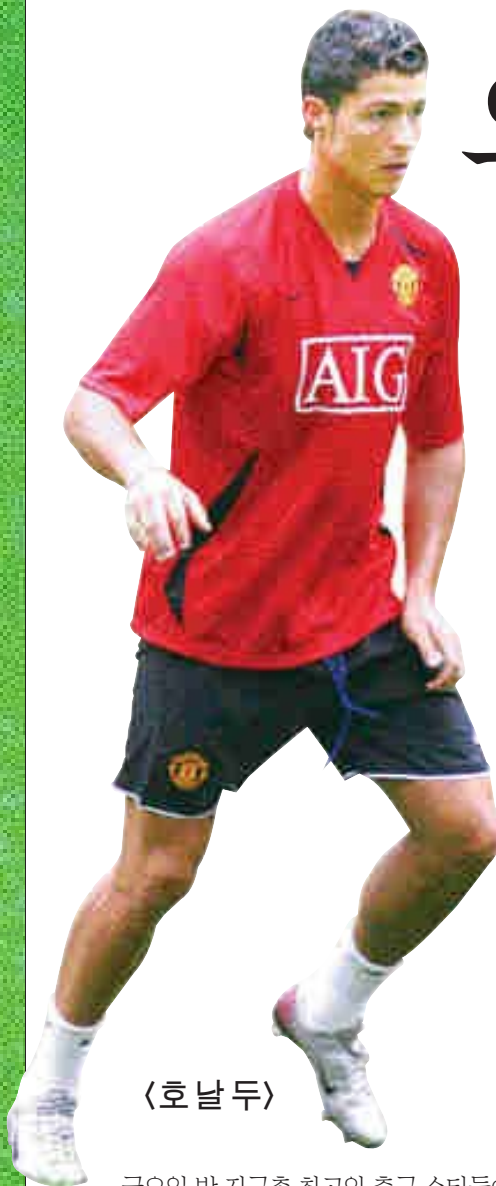
▲공격수는 골로 말하라= 세 경기에 단 세 골. 더구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한참 밀리는 바레인과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골 밖에 뽑지 못했다. 이는 한국 축구에겐 최악의 성적이다. 더구나 전방 원톱 공격수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결국 공격 상황에서 약속된 세트 플레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아를 순회하며 친선경기중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운동장을 달리며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금요일 밤 지구촌 최고의 축구 스타들이 뜬다. 2006-2007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축구중가의 자존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금호타이어컵 코리아투어 2007' FC서울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오늘 별들이 뜬다

맨유-서울 오늘 오후 8시 친선축구

박지성의 활약으로 이미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맨유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웨인 루니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이언 깁스, 폴 스코츠, 에드윈 판 데르사르 등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주역이 대거 포함된 최강 멤버로 한국을 찾아 축구팬을 설레게 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진수를 안방에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나니와 오인 하그리브스 등 올 여름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가세했고,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인 박지성도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이라 출전은 힘들지만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 먼저 다녀 지난 17일 지난해 J-리그 우승팀 우라와 레드와 친선경기(2-2 무승부)를 치르고 18일 방한한 맨유는 비가 내린 19일 오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중가의 지존'이 무대에 오르는 만큼 볼거리도 풍성하다.

지난 시즌의 맹활약으로 영국축구선수협회(PFA)로부터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상을 휩쓸었던 세계 최고의 원포워드 호날두의 현란한 개인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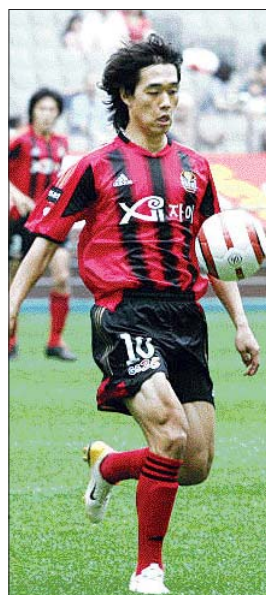
'제2의 호날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드필더 나니, 그리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인 끝에 영입한 중앙 미드필더 하그리브스는 맨유 유니폼을 입고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퍼거슨 감독은 1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니는 서울전에 선발로 나설 것이고, 하그리브스의 모습도



<루니>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감독은 18일 "우라와전에서는 전반에 빠른 템포로 활발하게 경기가 진행됐지만 후반에는 차졌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전·후반 내내 같은 강도와 템포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빠른 경기를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세계적 강호와 격돌하게 된 세를 귀네슈 서울 감독도 "맨유가 강팀이지만 맨유를 이길 수 있는 팀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주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맨유 퍼거슨 감독 "제2의 박지성'은 박주영"

지난 해 9월 유럽 스포츠 전문사이트 '유로스포츠' 인터넷판은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이 찾고 있는 '제2의 박지성'이 박주영(22·FC서울·사진)이라고 보도했다.

2005년 8월엔 퍼거슨 감독이 당시 K-리그 부산 아이파크 지휘봉을 잡고 있던 이안 포터필드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선수 얘기를 하다 박주영에게 관심을 표시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퍼거슨과 포터필드 감독은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그래서 맨유가 한국에서 두 번째 선수를 영입한다면 그 주인공은 아마도 박주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박주영은 지금 우울하다. 기다리던 맨유가 방한해 2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친선경기를 갖지만 점차 몸은 경기를 뛰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주영으로서 퍼거슨 감독의 눈앞에서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실력을 펼

쳐보고 싶을 터다. 열쇠는 세를 귀네슈 FC서울 감독이 쥐고 있다. 승부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친선경기라면 FC서울의 최고 인기스타인 박주영을 프리미어리그 최고 팀과의 대결에 시험 출전시킬 수도 있다. 맨유에선 박주영과 동갑내기인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공격의 주축이다. 팬들에겐 루니, 호날두와 박주영의 맞대결 만큼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다.